

전북도 탄소산업 성장 견인

1년간 총 10개 정책과제 발굴 성과 발표 기업·연구기관·학계 등 전문가 참석

전북도는 11일,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에서 지난 1년간 발굴한 10개의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위원장인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 4개 분과(탄소정책·탄소융합·탄소소재·탄소나노소재분과)에서 지난 1년 동안 발굴해 낸 정책과제를 발표, 정책과제 발굴성과와 앞으로 시책화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들 4개 분과는 그동안 분야별로 전북 탄소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큰 틀의 정책과제 발굴 및 기획을 위해 매월 두세 차례의 기획회의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총 10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해 이번 위원회를 통해 발굴 성과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각 분과는 발굴과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리개발과 타당성확보 등 완성도를 높여 국가정

책화 또는 도 시책으로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번 발표된 주요 과제들은 전북 탄소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 탄소기술 상용화기반 강화, 창업, 인력양성 등 정책과제 등이 중심을 이룬 점이라 할 수 있다.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탄소소재법 제정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에 탄소산업이 반영되어, 국가차원 종합계획 수립 등 탄소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국가정책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만큼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 내고 정부에 제공해서 최대한 국가정책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세계태권도선수권 성공개회 유공자 표창

송하진 도지사는 11일 오후 3시 전북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무주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공 표창을 수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태권도성지 무주 명성 드높인 주역들

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공자 표창

전북도는 11일, 전라북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17무주WTF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 대상자는 총 266명으로 자원봉사, 대회 운영, 경기 운영, 안전관리, 문화 홍보 등의 각 분야별로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대회기간동안 4만 2,000여명(1일 평균 6,000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음에도 사건 사고 없는 수준 높은 대회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준 유공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대회를 통해 거둔 성과는 태권도원을 활성화하고, 태권도를 한류 명품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며, "5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은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여는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겠다는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했다.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는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태권도원(무주군 설천면 소재)에서 열렸다.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20년만의 전라북도에서 열린 국제대회로 대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183개국에 참여한 태권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인 태권도원이 태권도 종주국의 핵심시설로 소개됐다.

특히, 국가수반이 참석한 역대 최초의 대회로 1,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올리는 등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졌다.

/김진성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전북선관위 불법행위 단속 강화

15일부터 인쇄물 배부·시설물 설치 등 금지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배부 또는 발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한 후보자의 명이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크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 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불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도내 농촌고령자 350명 대상

식생활 건강개선사업 큰호응

전북도는 도내 고령지역 7개군, 7개 마을 대상으로 식생활 건강교육, 운동프로그램, 마을단위 공동급식(마을공동밥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2017 전라북도 농촌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 시범사업'이 농촌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북도는 민관이 손잡고 농촌지역 고령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 고령인구 30%이상인 시군 7개 마을, 고령자 35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맞춤형 식단 레시피와 관련 교육으로 농촌 고령자들의 식생활 개선에 나섰다.

전북도 조호일 농식품산업과장은 "올해 도내 고령인구 30%이상을 시군 7개 마을을 선정하여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식생활과 건강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도내 14개 시군 전역으로 농촌 고령자 식생활 건강개선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군산2국가산단 오폐수 처리 안전하게”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1단계사업 완료... 기업유치 활기

군산시가 오식도동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1일 1만 3천톤의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를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 시설공사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최근 준공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산시에서는 군산2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공사(1단계)를 국비와 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부담으로 총 336억원을 투입하여 1일 1만 3천톤 규모의 공장폐수와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공사를 마무리했으며, 이에 기존 시설의 3만 톤을 포함한 하루 4만 3천 톤 규모로 새만금산단과 군산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종합 시운전을 통해 사전 기기 점검 후 본격적으로 처리장에 오·폐

수를 유입시켜 각 기기 또는 설비간의 연계작동 상황을 점검하여 원활한 처리기능을 확인하고 오·폐수처리를 위한 각 설비의 최적운전의 조건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준공으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안정적이고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해양수질오염 방지와 친환경 경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투자기업 유치에 활기를 불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새만금산단과 군산2국가산단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공장폐수와 생활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총 578억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폐수종말처리장시설 증설공사를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해 왔다.

/군산=김판근 기자

도 탄소산업 전망 파란불

내년도 탄소분야 국가예산 역대 최대... 36건 848억원

전북도는 2018년도 탄소분야 국가예산이 총 36건 848억원으로 역대 최대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액과 건수에서 역대 최대 최대의 수확으로 2018년 신규 대형국책사업이 대거 반영되어 이루어진 성과로 분석된다.

탄소분야 국가예산 848억원 달성의 의미는 전북도의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 소재인 '탄소' 상용화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임노옥 탄소산업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탄소산업과 같은 신성장산업 육성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도와 정치권이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심혈을 기울여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